

##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김 현 숙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조사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과 결혼적응」이다. 분석은 각 독립변수와 결혼적응의 관계를 다변량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만족은 배우자지지, 가족생활스트레스, 의사소통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의도는 자녀수, 가족생활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애정은 결혼기간, 배우자 지지, 의사소통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서 가족생활스트레스가 공통적이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생활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결혼적응,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 가족생활스트레스

### 1. 서론

최근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증가가 심상치 않다. 이혼이 행복하지 않은 결혼에 대한 하나의 선택적 대안으로 수용되는 경향으로 질어지고 있지만, 현재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의 정도와 속도는 지나친 감이 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가 2004년 138,932건에서 2008년 116,535건으로 약 1.2배 감소한 반면, 이중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같은 기간 동안 3,300건에서 11,255건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3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2004년까지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간의 이혼이 많았으나, 2005년부터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의 이혼이 더 높게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411-J01101).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이 기간 동안 무려 약 5배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이혼 현상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이 크게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이들 부부의 결혼생활이 일반 부부의 결혼생활과 비교할 때 평탄치 않음을 의미한다. 즉, 국제결혼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박재규, 2006:73). 한국 및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해없이 한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결혼하는 국제결혼 구조의 문제(최송식·장익진·김현숙, 2008:225), 그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문화에의 부적응과 갈등(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48-152), 기대했던 결혼생활과 실제 결혼생활의 차이(윤형수, 2004:331-337),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류사회로의 통합에의 어려움과 고립(김현숙, 2007:103-212), 부양 및 양육 스트레스 등이 결혼생활 및 한국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과정에는 일반 부부와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으며,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이들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결혼적응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배경을 가진 두 개인의 결합으로, 결혼생활과정에는 공통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 서로의 가치관을 조정하고 배우는 상호적응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부의 결혼적응에 대한 연구는 Hamilton(1929)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그 후 Burgess와 Cottrell(1939:317-322), Locke and Williamson(1958:562-569), Blood(1960:209-219), Burr(1970:29-37), Spanier(1976:403-414)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1970년대 이전까지 결혼적응 개념은 행복, 만족, 일치, 안정, 동료감, 조화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이며, 결혼 상태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대부분 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Spanier(1976:404)는 결혼 적응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다루면서, 결혼적응을 부부간의 일치, 만족, 응집, 애정표현 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Spanier(1976:404)의 결혼적응 개념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결혼생활에는 적합하지만, 한국과 같이 결혼에 가족의 영향력이 큰 부부의 결혼적응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이경성·한덕웅, 2003:680).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경성·한덕웅(2003:679-705)은 Spanier의 결혼적응 개념에 기반하여 가족관계를 포함한 결혼적응척도를 개발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 온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사회·인구학적 요인, 결혼 전 요인, 부부 상호작용 요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부부의 교육수준(고정자·김갑숙, 1999:15; 조금숙, 2000:26), 배우자의 안정적인 직업 및 수입(고정자, 1998:14), 성별의 영향(최규련, 1984:93), 결혼 기간(김혜경, 2005:64) 등이 있으나, 실제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결혼적응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 결혼 전 요인으로 부부의 교제기간(김태현·이성희, 1999: 103), 원가족의 특성 및 건강도(권정란·이인수, 2006:51-53)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체로 결혼 전 교제기간이 길수록, 원가족이 건강할수록, 부부의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 상호작용 요인으로는 부부의 의사소통(오경희, 1997:209), 자아분화수준(조은경·정혜정, 2003:125), 스트레스 및 갈등해결방법의 차이(이현희, 2002:20-25) 등이 결혼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에 의

하면 부부의 상호작용 요인이 사회·인구학적 요인보다 부부의 결혼적응과 관련하여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적응 문제는 인종,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국인 부부보다 더 복잡하다. 즉,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문제는 국제결혼 부부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 부부의 경우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결혼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오경희, 1997:209),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의사소통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언어 수준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언어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문화습득능력이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나아가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권복순·차보현, 2006: 113). 둘째, 부부의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해서 나타나는 갈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48-152). 따라서 이들 부부의 결혼적응 문제를 다룰 때에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신국은 언어와 문화적 특징에 기반한 것으로 이주국과의 차이를 야기하는 주요 변인으로, 출신국은 결혼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셋째,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현희, 2002: 20-25). 특히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일반부부와 다르게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적응을 다루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연령 및 연령차, 결혼기간, 학력, 자녀수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형태, 가구소득, 배우자의 지지 등 가족변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국인 간의 결혼이 연령과 교육면에서 비슷한 사람들 간의 결혼 즉, 동질혼이라면 적어도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국제결혼은 이러한 동질혼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를 크게 하기 때문에 결혼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결혼적응 문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의 탄력 정도(프로마 월시, 1998: 양옥경·김미옥·최명민, 2006:41 ; 이은희, 2009:73-94)나 한국어 수준에 따라(홍달아가·채옥희, 2007:733) 결혼적응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부의 결혼적응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연구들은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적응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별요인들을 밝히는데 집중함으로써, 이것만으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별 요인들 중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적응에 무엇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족 요인, 자원 요인, 스트레스 요인이 결혼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 중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이며, 결혼적응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결혼적응

결혼적응은 결혼의 성공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결혼에 이룬 부부의 적응방식과 적응정도는 결혼생활의 성공과 개인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의 결혼 적응의 문제는 최근 결혼과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적응(adjustment)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개체가 환경에 대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족학의 입장에서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은 두 성인남녀가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 적응하는 연속적 관계이며(이기숙,공미혜,김득성,김은경,손태홍,오경희,전영주, 2001:296), 또한 부부 쌍방 간의 적응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 조건, 즉 경제적, 사회적, 인간적 환경이라는 여러 외적 조건에 대한 적응이라 하겠다(옥선화·정민자·고선주, 2006:97).

결혼적응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역할 모델(Role model)과 동반자 모델(companionship model), 결혼적응모델(marital adjustment model)이다. 첫째, 역할 모델은 결혼적응을 부부간의 역할구조 면에서 측정한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의식이 일치되는 것이 그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Kotlar, 1965 : Noller, 2005:98 재인용). 그러나 결혼생활을 물질적인 차원에 국한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감정 공유 등의 내면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경직된 역할관계를 통해 부부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강은령, 1989:9). 둘째, 동반자 모델은 결혼을 역할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로 보고(Burgess, Cottrell and Williamson, 1958: 이숙현, 1988:163 재인용), 부부간의 내적인 감정상태 즉, 친밀한 결합, 감정이입, 애정의 표시, 공통된 관심사와 같이 참여하는 활동 등과 같은 동반자의식을 결혼적응 측정의 주요한 지표로 삼는다(Noller, 2005:99). 하지만 동반자 모형은 부부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너무 감정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장은정, 2007:17). 이상과 같이 1970년대 이전까지 결혼 적응 개념은 부인 일방의 적응에서 부부 상호간의 적응문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주로 결혼 상태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대부분 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Spanier(1976:403)는 그 동안 결혼 적응의 개념이 부부 관계의 질적인 측면만을 다루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결혼 적응을 과정과 상태의 두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즉, 결혼 적응에는 좋은 적응에서 나쁜 적응에 이르는 여러 차원이 있으며, 조만간 어느 점에서 평가될 수 있는 질적인 차원을 가진 항상 변화하는 과정이다(김득성, 1986:56). 또한 Spanier(1976:403-404)는 결혼 적응을 부부 쌍방의 적응문제로 다루면서, 다루기 힘든 결혼상의 차이, 배우자 간의 긴장과 개인적이고

민, 결혼만족, 부부 결합, 결혼의 기능에서의 중요한 일에 대한 일치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산물로 정의하였다.

한편 그동안 결혼과 가족을 연구한 학자들은 결혼 적응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에 대해 다양한 개념화를 시도해 왔다. Blood(1960:212)는 결혼 적응의 하위 요소로 의견일치, 부부갈등, 성적 적응 등을, Locke(1958:564)는 의견일치, 성적행동, 애정적 친밀성, 결혼 및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 동반의식 등을, Burgess, Cottrell and Williamson(1958)는 결합의 친밀성, 결합의 전개, 결합 작용, 부부 행복감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학자들이 제시한 결혼 적응의 하위요소들은 서로 중복되고 정적인 접근으로 결혼 적응 개념에 내재된 동적인 속성을 반영시키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결혼 적응의 측정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Spanier(1976:403)는 결혼적응의 하위영역을 부부간의 일치, 만족도, 응집도, 애정표현도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결혼생활에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다차원 영역으로 결혼적응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나라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는 결혼과 가족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이다. 이경성과 한덕웅(2003:679-705)은 Spanier(1976:403)의 결혼적응 개념을 따르면서도 우리나라 부부의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판 결혼적응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적응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부부와 다르지만 서구의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와도 다르며, 또한 최근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 이경성과 한덕웅이 개발한 결혼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혼적응의 하위개념은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 등의 3가지 영역으로 하였다. 첫째, 결혼만족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과 배우자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만족은 결혼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긍정적 태도로 정의된다(이경성, 2001:98). 결혼생활 및 배우자만족은 가족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이혼 의도는 이혼이나 별거를 원하고,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시도이다(이경성, 2001:98). 사람들은 이익을 내는 관계에 만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계가 해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전제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부부간 애정은 친밀성, 상호소통, 성적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만족과 더불어서 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다(이경성, 2001:98). 친밀감은 배우자에게 가깝다고 느끼고, 배우자의 행복을 기원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상호소통은 배우자와 의사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수준으로,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김오남, 2006:89; 홍달야기·채옥희, 2007:739). 성적만족은 부부간의 성적 관심, 애정 표현 및 성관계에 대한 만족하는 것으로, 성생활은 부부 상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그동안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연령차, 한국어수준, 국제결혼 경로, 자이즌중감, 가족가치관, 부부권력과 배우자 역할수행 평가, 의사소통기술, 아내학대 등이 결혼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왔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적응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결혼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해 온 개별변수들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족 요인, 스트레스 요인, 자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1) 사회인구학적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결혼적응과 관련된 변인은 출신국, 연령, 학력수준, 종교, 결혼기간, 자녀유무 등이 연구되어 왔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적응 혹은 결혼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한다.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를 비교 분석한 양순미(2006:151)에 의하면, 필리핀과 일본 이주여성의 결혼생활수준은 중국 조선족 이주여성의 적응수준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았으며, 남편의 적응수준도 아내들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보고한다. 이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할수록 결혼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김두섭·이명진(2007:40)은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 특히 연령, 학력의 차이가 클수록 결혼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차는 일반부부의 결혼적응 연구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강은령, 1989:68), 연령의 차이가 클수록 배우자의 역할수행이나 가치관의 차이 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부 상호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학력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관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연구들이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지만(권복순 외, 2006:129; 김두섭 외, 2007:42), 몇몇 연구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만길의 연구(2005:106)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중 중졸이하 집단보다 고졸, 대졸집단이 결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종교가 결혼적응의 강력한 예측변수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Filsinger & Wilson, 1984; 강은령, 1989:16 재인용),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에 의한 국제결혼 선택의 비율이 높고, 이혼을 원하면서도 이혼하지 않는 이유로 '종교 때문'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161), 종교는 결혼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사전지식이 정확하고 충분할수록 결혼의 질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서(최송식 외, 2008:243), 결혼경로는 결혼적응에 예측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결혼기간과 결혼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

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결혼기간과 결혼적응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전만길(2005:66)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이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생활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지만, 김오남(2006:61)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부부갈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다. 부부간 연령차는 결혼적응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두섭 외, 2007:42). 지나친 연령차는 배우자로서 역할수행의 문제, 부부의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결혼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한편 가정 내 의존적인 자녀의 존재는 부모의 시간, 에너지, 경제적 자원의 소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이숙현, 1988:166), 부부의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가족관계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김세아, 2009:34)에서 자녀 및 자녀수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역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 게다가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정체성의 혼란, 언어발달 지연에서 오는 학습 부진의 문제, 사회성 및 성격발달의 문제, 주위의 편견,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되고 있어서(오성배, 2006:150),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양육역할의 긴장은 일반가정의 부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2) 가족 요인

가족구조란 가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유형적으로 일정한 원리에 따라 유기적으로 배치되는 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양옥경·송민경·임세와, 2007:143). 선행연구에서 가족구조를 예측변수로 사용할 경우 가족형태, 가족관계, 자녀, 가구소득 등을 포함해 왔으나(양옥경 외, 2007:143), 본 연구에서는 가족형태와 가구소득, 배우자 지지만을 포함시켰다.

가족형태와 결혼적응의 관계에서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소영, 2008:59)에서 결혼적응이 핵가족과 확대가족 사이에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라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서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통제가 항존하고, 시댁과의 갈등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김이선 외, 2006:155-19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가족형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결혼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가구소득이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이규삼, 1999:50; 홍기혜, 2000:105-116; 권복순 외, 2006:1256). 홍기혜(2000:105-116)는 경제력을 비롯한 가정 내 많은 자원을 남편이 독점함으로써 이주여성이 부부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규삼(1999:50), 권복순 외(2006:125)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을 더 느낀다고 제시하고 있어서, 가구소득과 결혼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결혼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상대방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가 부부의 결혼만족 및 안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지적한다(Cutrona, 1996 ; 장춘미, 2008:55 재인용).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에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혼적응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3) 스트레스 요인

부정적인 사건이 인간의 건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춘미, 2008:53-75)는 연구결과는 스트레스 사건이 부부의 결혼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이정은·이영호, 2000:531-548)는 경제적 곤란을 심하게 느낄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가 커지며, 부부의 결혼만족이 감소함을 보고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활조건이 개인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혼관계에서 스트레스 사건은 부부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억제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생활의 안팎에서 부부나 각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스트레스 사건을 다루는데 소모하게 되어 서로에게 소홀하게 되고, 혹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의 의견차이로 인해 부부기능에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스트레스는 이주로 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족생활스트레스, 그 밖에 사회참여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생활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문화적응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접촉할 때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고통과 역기능을 말하는데(Berry, 2005:18),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한국생활 및 결혼적응이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지적한다(김오남, 2006:62; 양옥경 외, 2007:160). 양옥경 외(2007:160)에서는 사회통합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지적하고, 김오남(2006:62)의 연구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을 설명하는 모델 중 문화모델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임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결혼한 배우자에게 문화적 차원이 믿음, 관습, 전통, 삶의 양식을 포함한 결혼생활의 중요한 면으로서, 문화적 차이 및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생활스트레스(family life stress)는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이사, 전학, 가족이나 친구의 질병과 부상, 가족 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주요한 생활사건과 사소한 생활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나임순, 2008:99).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상생활에는 국가, 성, 계급의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이혜경, 2005:94-95), 일반 여성이 겪는 생활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나임순(2008:130)은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생활스트레스에서 가사노동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경제문제,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고 있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스트레스는 결혼적응에 예측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자원 요인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소유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것이며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며 재능이자 소유물이다(신은주, 1996:33). McCubbin(1991:5)는 자원을 개인적 자원, 가족체계자원,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자원은 가족 개개인이 인지능력, 자립능력, 재정, 교육, 건강, 성격 특성 등을 말하며, 가족체계자원은 가족조직의 내부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원들 간의 의사결정 또는 문제해결능력, 개방된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지지자원은 사회적 교제를 통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구관계, 이웃, 지역사회, 사회기간의 보조 등에서 얻어지는 자원을 말한다. 따라서 자원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는 수단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격변인인 자아탄력성과 한국어수준을 자원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결혼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Holman and Larson, 1994:47), 자아개념, 인성, 자아탄력성 등의 인성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중에서도 자아탄력성은 하나의 성격유형으로, 좁게는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자원이며, 넓게는 외적, 내적 스트레스원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다(Block, 1982; 프로마 윌시, 1998; 양옥경 외, 2006: 41 재인용). 이은희(2009:73-94)는 탄력모델을 적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후 가족과의 생활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생활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요인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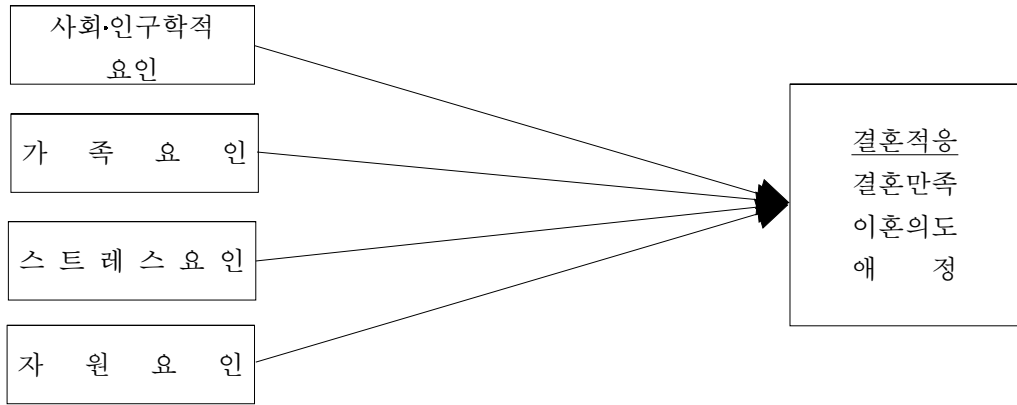
부부의 애정적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의 우수한 예측변인임을 밝히고 있다(이정은·이영호, 2000:538).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생활 및 결혼생활에의 적응에서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주된 어려움으로 되어 있으며(양순미, 2006:169; 홍달아기 외, 2007:741),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의사소통수준은 결혼적응에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3)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족 요인, 스트레스 요인, 자원 요인은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족 요인, 스트레스 요인, 자원 요인은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 간 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2009년 7월-8월에 걸쳐 수집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과 결혼적응』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부산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 자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2008년)을 기초로 부산지역 결혼이주여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적별로 할당하여 표집 되었고, 부산지역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지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팀, 복지관 등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이 자료에는 중국 45명, 중국 조선족 26명, 일본 21명, 몽골 9명, 베트남 36명, 필리핀 10명, 태국 12명, 러시아 13명 등 총 172명의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 2) 측정도구

##### (1) 사회인구학적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연령차, 교육수준, 결혼지속기간, 자녀수 등을 측정하였다. 연령은 20-29세(1), 30-39세(2), 40-49세(3), 50-59세(4)로 측정하였고, 회귀식에서는 년(year) 단위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1), 중학교 졸업 이하(2), 고등학교 졸업 이하(3), 전문대학 졸업 이상(4)로 측정하였으며, 회귀식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0), 전문대학 이상(1)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연령차는 남편의 연령에서 부인의 연령을 뺀 것으로, 동갑 및 연하(1), 1-5세(2), 6-10세(3), 11-15세(4), 16-20세(5), 21세 이상(6)으로 측정하였고, 회귀식에서는 년(year) 단위로 측정하였다. 결혼기간은 0-5년(1), 6-10년(2), 11-15년(3), 16년 이상(4)로 측정하였고, 회귀식에서는 년(year) 단위로 측정하였다. 자녀수는 없다(1), 1명(2), 2명(3), 3명 이상(4)로 측정하였고, 회귀식에서는 자녀수의 유무로 없다(0), 있다(1)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 (2) 가족 요인

가족과 관련된 요인은 가족형태, 가구수입,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였다. 가족형태는 부부(1), 부부+자녀(2), 부부+(자녀)+(시부모)+(남편형제)(3), 부부+(자녀)+(친정부모)+(친청형제)(4)로 측정하였으며, 회귀식에서는 부부, 부부+자녀=핵가족(0), 나머지는 확대가족(1)로 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수입은 ㉠ 모름, ㉡ 100만원 미만, ㉢ 101-150만원, ㉣ 151-200만원, ㉤ 201-250만원, ㉥ 251만원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배우자 지지는 Zimet et al(1988:34)의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은 총 3개(가족, 친구, 의미있는 타자)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의미있는 타자를 배우자, 시부모, 친정부모, 모국친구, 한국친구로 수정하고, 여기서 배우자 지지 부분만 사용하였다. 배우자 지지의 신뢰도는  $\alpha = .87$ 이다.

## (3)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생활스트레스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중(1995:34)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① 지각된 차별감, ② 향수병, ③ 지각된 적대감, ④ 두려움, ⑤ 문화충격, ⑥ 죄책감, ⑦ 기타 일곱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지각된 차별감  $\alpha = .82$ , 향수병  $\alpha = .62$ , 지각된 적대감  $\alpha = .80$ , 두려움  $\alpha = .67$ , 문화충격  $\alpha = .70$ , 죄책감  $\alpha = .62$ ,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alpha = .69$ 이다.

가족생활스트레스란 가족구성원이 생활하면서 겪는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가족의 요구(demands)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족의 능력(capabilities)과 사이의 불일치 결과이다(McCubbin,1991). 본 연구에서 가족스트레스 측정은 McCubbin(1991)의 FL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의 척도를 성혜영(1998:25)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가족관계(6문항), 경제관계(4문항), 대인관계(6문항), 건강문제(2문항)를 하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가족관계스트레스  $\alpha = .83$ , 경제관계스트레스  $\alpha = .85$ , 대인관계스트레스  $\alpha = .78$ , 건강스트레스  $\alpha = .85$ 이다.

#### (4) 자원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자원과 관련된 변인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 한국어 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측정은 Block(1961, 1978)이 CAQ(California Adult Q-Sort)의 방법으로 평정한 것으로, Klohnen(1996)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로 새로이 보완 수정된 것을 박유숙(2001:10)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긍정적 진술 15문항과 부정적 진술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아탄력성 신뢰도는  $\alpha = .85$ 이다. 한국어수준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나누어 각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5) 결혼적응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은 이경성·한덕웅(2003:679-705)이 개발한 결혼적응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 주변가족과의 관계, 자녀만족, 경제적 만족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 서로간의 적응에 초점을 두어 결혼만족(7문항), 이혼의도(7문항), 부부간 애정(12문항)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결혼만족  $\alpha = .82$ , 이혼의도  $\alpha = .99$ , 부부간 애정  $= .92$ 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통해 기초통계량을 구하였다. 그 다음에는 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요인별, 가족 요인별, 스트레스 요인별, 자원 요인별로 결혼적응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독립변수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4. 분석 및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출신국은 중국이 26.2%(45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 20.9%(36명), 중국 조선족 15.1%(26명), 일본 12.2%(21명), 러시아 7.6%(13명), 태국 7.0%(12명), 필리핀 5.8%(10명), 몽골 5.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4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40.1%)였고, 이들이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40대는 8.7%, 50대는 9.9%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 분포는 고졸이 3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학 졸업 28.0%, 중학교 졸업 21.0%, 초등학교 졸업 8.3%, 대학 졸업 5.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학력은 11.88년으로 약 고등학교 이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8.5%는 중매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경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2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는 소개 23.4%, 교회소개 20.2%, 친구소개 20.2%, 가족소개 8.7%, 기타 3.2%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가구형태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가 4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부+(자녀)+(시부모)+(남편형제)로 구성된 가족형태(30.4%), 부부 단독 가족형태(18.7%), 부부+(자녀)+(친정부모)+(친정형제)로 구성된 가족형태(3.5%) 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출신국 (N=172)	중국	45(26.2)	학력 (N=157)	초등학교 졸업	13(8.3)	연령 (N=172)	20-29	71(41.3)
	조선족	26(15.1)		중학교 졸업	33(21.0)		30-39	69(40.1)
	일본	21(12.2)		고등학교 졸업	58(36.9)		40-49	15(8.7)
	베트남	36(20.9)		전문대학 졸업	44(28.0)		50-59	17(9.9)
	필리핀	10(5.8)		대학 이상	9(5.7)	결혼 형태 (N=163)	연애 결혼	35(21.5)
	몽골	9(5.2)					중매 결혼	128(78.5)
	태국	12(7.0)						
러시아	13(7.6)							
결혼경로 (N=94)	친구소개	19(20.2)	가족형태 (N=171)	부부	32(18.7)			
	가족소개	8(8.5)		부부+자녀	81(47.7)			
	교회소개	19(20.2)		부부+(자녀)+(시부모)+(남편형제)	52(30.4)			
	아는사람소개	22(23.4)		부부+(자녀)+(친정부모)+(친정형제)	6(3.5)			
	결혼중개업체	23(24.5)						
	기타	3(3.2)						
본인 직업 (N=163)	무직,주부	113(69.3)	배우자 직업 (N=162)	무직	5(3.1)	가구 수입 (N=158)	100만원미만	21(13.3)
	자영업	4(2.5)		자영업	31(19.1)		101-150만원	29(18.4)
	기능원	0(0.0)		기능원	48(29.6)		151-200만원	35(22.2)
	단순 노무	7(4.3)		단순 노무	28(17.3)		201-250만원	19(12.0)
	사무직	12(7.4)		사무직	24(14.8)		250만원이상	28(17.7)
	서비스직	19(11.7)		서비스직	12(7.4)		모름	26(16.5)
	판매직	3(1.8)		판매직	5(3.1)			
	농업 등	1(0.6)		농업 등	3(1.9)			
	과학기술자	3(1.8)		과학기술자	5(3.1)			
	기타	1(0.6)		기타	1(0.6)			

조사대상자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69.3%가 전업주부였고,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직이 1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무직 7.4%, 단순노무 4.3%, 자영업 2.5%, 과학기술자 1.8%, 농업 0.6% 순이었다. 배우자의 경우 기능원이 2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 19.1%,

단순 노무 17.3%, 사무직 14.8%, 서비스직 7.4%, 판매직 3.1%, 과학기술자 3.1%, 농업 등 1.9% 순이었고, 남편이 직업이 없는 경우도 3.1%로 나타났다.

## 2) 각 요인별 결혼적응의 비교분석

### (1)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결혼적응

사회·인구학적 요인별로 결혼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연령별 결혼적응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 $F=3.269$ ,  $p<.05$ )과 이혼의도( $F=4.357$ ,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부간 애정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혼만족의 경우, 40대가 24.73, 20대가 24.49로 20대에 비해서 40대가 오히려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만족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로 21.68로 나타났다. 이혼의도의 경우 30대가 12.45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8.58로 가장 낮았다. 부부간 애정은 40대가 43.40으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0.11로 가장 낮았다. 즉, 40대에서 결혼만족, 부부간 애정이 가장 높은 반면, 30대에서 결혼만족과 부부간 애정이 낮고, 이혼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40대에 결혼적응 수준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뒤의 결혼기간과 비교해 볼 때 연령효과라기 보다는 40대에 결혼기간이 0-5년 사이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는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으로 결혼만족과 부부간 애정을 낮추고, 이혼의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수준별 결혼적응의 하위변인들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적응의 차이는 부부간 애정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F=3.258$ ,  $p<.05$ ), 0-5년 사이가 부부간 애정이 42.92로 가장 높았고, 11-15년 사이가 33.44로 가장 낮았다. 이것은 일반 부부에서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간 애정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차이에 따른 결혼적응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녀수는 결혼만족이나 부부간 애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혼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997$ ,  $p<.05$ ). 그러나 자녀는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서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이혼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 본인도 아직 적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결혼적응의 평균 차이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애정
연령	20-29	71	24.49(5.58)	9.54(5.61)	42.28(12.50)
	30-39	69	21.68(6.31)	12.45(6.87)	40.64(11.36)
	40-49	15	24.73(4.35)	8.40(3.50)	43.40(11.73)
	50-59	17	23.64(3.77)	8.58(3.16)	40.11(9.04)
	<i>F</i>		3.269*	4.357**	.437
학력	초등 이하	13	24.69(5.92)	8.07(2.59)	42.76(15.89)
	중학 이하	32	24.36(5.96)	9.84(4.59)	43.00(10.91)
	고등 이하	58	22.86(5.68)	10.63(6.01)	40.10(10.36)
	전문대학 이하	44	22.56(6.11)	11.79(7.55)	43.63(10.67)
	대학 이상	9	25.55(4.09)	10.33(4.66)	46.11(7.18)
	<i>F</i>		.386	.338	.381
연령차	동갑,연하	12	22.31(4.87)	10.05(5.37)	40.10(10.24)
	1세-5세	25	23.04(6.18)	10.66(7.85)	42.91(11.12)
	6세-10세	49	22.91(5.55)	11.79(5.77)	43.16(10.28)
	11세-15세	39	24.56(5.64)	9.22(5.18)	42.05(12.10)
	16세-20세	26	23.25(6.36)	10.11(6.50)	38.29(14.88)
	21세 이상	18	22.18(6.83)	10.90(5.52)	38.27(9.87)
	<i>F</i>		.681	.518	.473
결혼 기간	0-5년	122	23.62(5.87)	10.36(5.98)	42.92(12.07)
	6-10년	27	23.37(5.20)	11.11(5.89)	41.96(9.06)
	11-15년	9	19.33(6.50)	11.22(7.88)	33.44(9.27)
	16년 이상	11	22.83(4.93)	9.63(5.48)	34.91(10.13)
	<i>F</i>		1.586	.228	3.258*
자녀수	0	55	24.16(6.13)	9.70(4.91)	42.70(12.67)
	1	53	21.96(6.00)	12.55(7.90)	40.94(9.98)
	2	33	23.18(5.25)	10.37(4.84)	44.45(9.92)
	3	11	24.54(2.42)	7.90(1.44)	38.54(10.67)
	<i>F</i>		1.548	2.997*	1.116

\* $p < .05$ , \*\* $p < .01$ , \*\*\* $p < .001$ 

## (2) 가족요인과 결혼적응

가족요인별 결혼적응의 하위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가족요인별 결혼적응의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가족 형태, 가구 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배우자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 형태와 결혼 적응의 하위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 만족은 부부 단독으로 사는 경우가 24.59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부부+(자녀)+(시부모)+(남편형제)가 함께 하는 가족 형태의 결혼만족이 23.63로 오히려 부부+(자녀)+(친정부모)+(친정형제)의 결혼만족 21.66보다 높았다. 또한 이혼의도를 살펴보면, 부부+(자녀)+(친정부모)+(친정형제) 가족형태에서 이혼의도가 11.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6.45), 부부+(자녀)+(시부모)+(남편형제)로 구성된 가족형태(10.97), 부부 단독 가구 (10.00) 순이

었다. 부부간 애정에서도 부부+(자녀)+(시부모)+(남편형제)로 구성된 가족형태가 43.9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자녀)+(친정부모)+(친정형제)로 구성된 가족형태에서의 부부간 애정이 36.5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입별 결혼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하위변인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은 가구수입을 모른다고 응답한 집단이 24.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 원 이하의 가구수입의 결혼만족이 21.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의도는 가구수입이 1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집단이 12.80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수입을 모른다고 응답한 집단이 9.42로 가장 낮았다. 부부간 애정은 가구수입이 25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43.07로 가장 높았고, 가구수입이 1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집단이 39.42로 가장 낮았다. 즉, 가구수입별 결혼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구수입이 낮은 집단에서 결혼만족, 부부간 애정이 낮았으며,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결혼적응이 수준이 가장 낮았다.

배우자 지지는 배우자 지지를 평균±표준편차로 하여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결혼적응의 하위변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 집단별 결혼만족의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 지지 '상' 집단이 28.30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지지 '하' 집단이 17.74로 가장 낮았다( $F=37.209, p<.001$ ). 이혼 의도는 배우자 지지 '하' 집단이 13.14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지지 '상' 집단이 8.11로 가장 낮았다( $F=5.809, p<.05$ ). 부부간 애정 역시 배우자 지지 '상' 집단이 52.41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지지 '하' 집단이 31.18로 가장 낮았다( $F=38.852, p<.001$ ). 이와 같이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 부부간 애정이 높으며, 이혼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에 따라 결혼적응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가족요인과 결혼적응의 평균차이

		N(%)	결혼만족 M(S.D)	이혼의도 M(S,D)	부부간애정 M(S,D)
가족 형태	부부	32	24.59(5.79)	10.00(6.23)	42.31(11.73)
	부부+자녀	81	22.86(5.71)	10.97(6.45)	40.56(11.18)
	부부+(자녀)+(시부모)+(남편형제)	52	23.63(5.55)	10.05(5.25)	43.90(10.50)
	부부+자녀+(친정부모)+(친정형제)	6	21.66(6.47)	11.00(5.76)	36.50(14.55)
	<i>F</i>		.434	.797	.247
가구 수입	100만원이하	21	21.71(7.12)	12.80(8.15)	39.42(13.65)
	101-150만원	29	23.55(6.21)	10.20(4.71)	41.48(12.76)
	151-200만원	34	23.77(5.09)	10.08(5.35)	41.91(10.96)
	201-250만원	19	23.21(4.70)	11.57(7.89)	41.10(12.02)
	250만원이상	28	22.03(5.56)	10.85(6.10)	43.07(9.91)
	모름	26	24.38(5.67)	9.42(5.13)	42.96(11.74)
	<i>F</i>		.822	.908	.322
배우자 지지	하	27	17.74(5.61)	13.14(6.59)	31.18(8.53)
	중	106	23.02(5.01)	10.61(5.96)	40.87(9.84)
	상	36	28.30(3.47)	8.11(4.74)	52.41(8.46)
	<i>F</i>		37.209***	5.809**	38.852***

\* $p<.05$ , \*\* $p<.01$ , \*\*\* $p<.001$



### (3) 스트레스 요인과 결혼적응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결혼적응의 하위변인들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4),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앞서 조사대상자의 가족생활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었다. 우선 가족생활스트레스 집단별 결혼적응의 하위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만족의 경우 가족생활스트레스 '상' 집단의 결혼만족이 17.48, 가족생활스트레스 '하'집단이 27.11로 나타나,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F=25.719$ ,  $p<.001$ ). 이혼의도의 경우 가족생활스트레스 '상' 집단의 이혼의도가 16.73, 가족생활스트레스 '하'집단이 7.12로 나타나,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혼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F=23.791$ ,  $p<.001$ ). 부부간 애정의 경우 가족생활스트레스 '상' 집단의 부부간 애정이 36.73, 가족생활스트레스 '하'집단이 48.07로 나타나,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부간 애정이 높게 나타났다( $F=7.042$ ,  $p<.01$ ). 따라서 가족생활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집단과 결혼적응의 하위변인들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 '상' 집단이 20.36, '하'집단이 27.40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F=13.243$ ,  $p<.001$ ). 이혼의도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 '상' 집단의 이혼의도가 14.24, 문화적응스트레스 '하'집단이 7.73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혼의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9.853$ ,  $p<.001$ ). 부부간 애정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 '상' 집단의 부부간 애정이 39.86, '하'집단이 48.10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부간 애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F=6.129$ ,  $p<.01$ ).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스트레스 요인과 결혼적응의 평균 차이

		N(%)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애정
			M(S.D)	M(S.D)	M(S.D)
가족생활 스트레스	하	25	27.11(4.50)	7.12(0.52)	48.07(11.62)
	중	118	23.76(5.20)	9.82(4.97)	41.06(11.56)
	상	26	17.48(5.08)	16.73(8.49)	36.73(9.07)
	<i>F</i>		25.719***	23.791***	7.042**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	30	27.40(3.80)	7.73(2.47)	48.10(9.15)
	중	112	22.99(5.80)	10.24(5.71)	40.17(12.27)
	상	30	20.36(5.17)	14.24(7.74)	39.86(9.03)
	<i>F</i>		13.243***	9.853***	6.192**

\* $p<.05$ , \*\* $p<.01$ , \*\*\* $p<.001$

#### (4) 자원 요인과 결혼적응

<표 5>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원 요인과 결혼적응의 하위변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의사소통수준을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어 결혼적응을 살펴보았다. 자아탄력성 집단별 결혼만족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자아탄력성 집단별 이혼 의도는 자아탄력성 '상' 집단이 12.12, 자아탄력성 '하' 집단이 7.72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3769, p<.05$ ). 자아탄력성 집단별 부부간 애정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부간 애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이혼 의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수준과 결혼적응의 하위변인 간의 차이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의 경우 의사소통수준 '상' 집단이 27.78, '하'집단이 19.04로 나타나,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7.657, p<.001$ ). 이혼의도의 경우 의사소통 수준 '하' 집단이 12.56, '상' 집단이 7.28로 나타나,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5.884, p<.01$ ). 부부간 애정에서 의사소통 수준 '상' 집단은 53.75, '하' 집단은 31.65로 나타나,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애정 수준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35.016, p<.001$ ). 이상과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자원 요인과 결혼적응의 평균 차이

		N(%)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애정
			M(S.D)	M(S.D)	M(S.D)
자아 탄력성	하	25	25.69(5.88)	7.72(3.60)	41.65(16.10)
	중	120	23.03(5.61)	10.73(5.92)	41.37(10.66)
	상	24	22.12(5.98)	12.12(7.53)	42.08(11.20)
	<i>F</i>		5.679	3.769*	.039
의사소통 수준	하	23	19.04(5.39)	12.56(6.14)	31.65(9.24)
	중	118	23.23(5.51)	10.83(6.40)	40.92(10.35)
	상	28	27.78(3.37)	7.28(1.04)	53.75(5.70)
	<i>F</i>		17.657***	5.884**	33.345***

\* $p<.05$ , \*\* $p<.01$ , \*\*\* $p<.001$

## 2)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각 독립변수들의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들(극단값 점검, 잔차의 정상성, 선형성, 동변량성,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였다. 자료의 극단치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점검한 결과 극단치 없이 개략적인 정상분포를 보였으

며, 예측된 값과 잔차의 산포도에서도 극단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차한계의 값은 모든 변수가 .402~.925로 나타났으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81~2.488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잔차의 독립성은 Dubin-Watson D 통계량을 통해 검증하였는데, 종속변수별로 각각 2.201, 1.940, 1.660로, 1.5와 2.5사이에 위치해 심각한 자기상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론된 전제조건을 고려하여 본 회귀식은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표 6〉은 결혼적응의 하위변수별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첫째 결혼만족에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요인 중에서는 배우자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가족생활스트레스가, 자원 요인 중에서는 의사소통 수준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58.9%로 나타났다. 결혼만족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가족생활스트레스였는데,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beta = -.381, p < .001$ )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172)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	
		B	Beta	B	Beta	B	Beta
사회·인구학적 요인	연령	-.021	-.044	-.003	-.005	-.012	-.014
	연령차	-.010	-.012	-.051	-.051	-.273	-.168
	결혼기간	-.033	-.056	.067	.104	-.147	-.138*
	학력	-.847	-.064	.912	.062	-1.416	-.059
	자녀수	.735	.117	-1.664	-.239*	.199	.017
가족 요인	가족형태	-.933	-.075	-.566	-.041	-1.542	-.069
	가구수입	-.273	-.079	-.018	-.005	-.015	-.002
	배우자지지	1.897	.306***	-.304	-.044	3.755	.333***
스트레스 요인	가족생활스트레스	-.157	-.381***	.205	.451***	-.112	-.150
	문화적응스트레스	-.024	-.102	.042	.163	.003	.008
자원요인	의사소통수준	1.418	.199*	-.266	-.034	6.143	.473***
	자아탄력성	-.114	-.227	.082	.148	-.096	-.105
상수		29.764***		-2.935		23.943**	
$R^2$		.634		.385		.650	
수정된 $R^2$		.589		.310		.607	
$F$		8.308***		1.594		17.289***	
Durbin-Watson		2.201		1.940		1.660	

\* $p < .05$ , \*\* $p < .01$ , \*\*\* $p < .001$

주)더미(dummy)변수 : 학력(고등학교 이하=0, 전문대학 이상=1), 가족형태(핵가족=0, 확대가족=1), 본 연구에서 연령, 결혼기간, 연령차, 자녀수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둘째, 이혼 의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자녀수와 스트레스 요인 중 가족생활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31.0%로 나타났다. 이혼의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가족생활스트레스였으며( $\beta = .451, p < .001$ ),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생활스트레스와 결혼적응이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나임순, 2006:97-136), 본 연구에서 가족생활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함께 투입할 경우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문화적응스트레스보다 이혼의사에 더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간 애정관계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결혼기간, 가족요인 중에서는 배우자 지지가, 자원 요인 중에서 부부의 의사소통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애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60.7%였다. 그리고 부부간 애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의사소통수준이었으며,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beta = .473, p < .001$ ) 부부간 애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은 결혼생활 적응은 물론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가족생활적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며, 의사소통빈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홍달아기 외, 2007:741)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각 독립변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 스트레스 변인, 자원 변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결혼적응의 하위영역을 결혼만족, 이혼의도, 부부간 애정(친밀성, 상호소통, 성적만족) 등으로 두고, 각 독립변인과 결혼적응과의 평균차이와 결혼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우선 각 독립변인과 결혼적응의 하위영역과의 평균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 결혼기간, 자녀수가 결혼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결혼만족이 낮고,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이혼의도가 높았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보다 1명인 경우에서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간 애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30대의, 자녀가 1명인, 결혼기간이 11-15년이 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국인 부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30대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감이 결혼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 요인과 결혼적응의 하위영역과의 평균 차이는 배우자 지지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와 결혼적응 하위영역과의 평균차이는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과 부부간 애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지지 집단별로 결혼적응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스트레스 요인별 결혼적응의 평균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스트레스와 결혼적응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 부부간 애정이 높으며, 이혼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적응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과 부부간 애정이 높으며, 이혼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생활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

에 따라 결혼적응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원 요인별 결혼적응의 하위영역과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이혼의도와 의사소통수준은 결혼적응 하위영역 모두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집단별 이혼 의도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 집단별로 이혼의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수준 집단별로는 결혼만족과 부부간 애정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 집단별로 결혼적응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 독립변인이 결혼적응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첫째, 결혼만족은 배우자 지지, 가족생활스트레스, 의사소통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가족생활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이 결혼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족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의도는 자녀수, 가족생활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만족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스트레스가 이혼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도를 낮추기 위해 가족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수 역시 자녀수가 적을수록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표3>에서 나타나듯이 자녀가 1명인 경우에서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결혼 후 첫 자녀를 둔 시기에서 결혼적응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본인도 아직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양육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어려움이 이혼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양육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부간 애정에는 결혼기간, 배우자 지지, 한국어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한국어 수준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나, 한국어 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하지만 원만한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준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또한 필요하다. 게다가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된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호혜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훈련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은 하위영역에 따라 각 독립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달랐다. 이것은 결혼적응이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적응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적응에 배우자 지지나 한국어 수준보다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생활스트레스를 함께 투입한 경우에도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한국어 교육이나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문화적응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감안할 때,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환기시킨다. 일반적으로 가족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누구나 겪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생활스트레스는 문화가 달라 발생하는 어려움이 가

증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지원정책은 가족생활에 대한 관심과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들의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가중된 결과일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였지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났다. 우선 정확한 표집들에 기초한 연구대상의 표집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가 주로 복지관, 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주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표집의 한계는 본 연구가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배우자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주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적응의 문제가 몇몇 변수와 결혼적응간의 관계에 살펴보는데 머물렀다면, 본 연구에서는 결혼적응의 문제를 보다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은령. 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권정란·이인수. 2006.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1, No.1, pp.35-56.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권복순·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3, pp.109-134.
- 김두섭·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안정성". 한국인구학, 제30권 제3호, pp.33-56
- 김득성. 1986.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13호, pp.679-705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제18집 3호, pp.63-106
- 김이선·김민정·한진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세아.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가족관계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태현·이성희. 1999. 『결혼과 사회』.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현숙. 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혜경. 2005. "여성지체장애인의 결혼만족도".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나임순. 2008. "외국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제7권 제1호.

pp.97-136

- 고정자. 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Vol. 36. No.4. pp.163-178
- 고정자·김갑숙. 1999.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Vol.37. No.6. pp.59-76.
- 박유숙. 2001.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29권 제3호. pp.67-84.
- 성혜영. "실직가장의 가족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은주. 1997. "자원에 따른 부부권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농촌사회 제167집. 2호. pp.151-179
- 양옥경·송민경. 임세와. 2007.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1호. pp.137-168
- 오경희. 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pp. 210-220
- 오성배. 2006. "한국사회의 소수 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 연구. Vol.16. No.4. pp.137-157.
- 옥선화·정민자·고선주. 2006. 『결혼과 가족』. 도서출판:하우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 이규삼. 1999.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기숙·공미혜·김득성·김은경·손태홍·오경희·전영주. 2001. 『결혼의 기술』. 신정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6. No.2 pp.97-119
- 이경성·한덕용.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Vol.8. No.3 pp.679-705
- 이소영. 2008. "가족 건강성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현. 1988.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2호. pp. 161-181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은희. 2009.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1호. pp.73-94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Vol.19. No.3. pp. 531-548
- 이현희. 2002. "스트레스, 통제감 및 대처방식이 결혼생활 적응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pp. 91-100.
- 장운정. 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춘미. 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Vol.14. No.1. pp.153-171
- 전만길. 2005. "외국인 주부 한국생활 실태 조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효정. 2000. "한국 부부의 갈등해소 방법 선택에 있어서 개인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

- 대한가정학회지, Vol.38, No.5, pp.91-106
- 조은경·정혜정. 2009. "원가족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3, No.4, pp.105-132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Vol.22, No.2, pp.91-102
- 최송식·장익진·김현숙. 2008.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2권 제4호 pp.217-246
- 프로마 월시·양옥경·김미옥·최명민 역.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나남출판.
- 홍달아기·채옥희. 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4호, pp.733-744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Burgess, E. W. and Cottrell, L. S. 1939.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New York: Prentice Hall, pp.317-322
- Burr, W. R. 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2(1), pp. 29-37
- Berry, J. W. 2005. *Conceptural Approches to Acculturation*. p. 17-38 in Acculturation, edited by Kevin M. Chun, Parmela Balls Organista and Gerardo Martin, Washington D.C. : Decade of Behavior.
- Block, J.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 53, 281-295
- Blood, R. O. 1960. *Resolving family confli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 pp.209-219
- Hamilton, G. V. 1929. *A Research in marriage*. Medical Research Press, New York.
- Locke H. J. Locke and Robert C. Williamson. 1958. Marital Adjustment : A Factor Analysis Study. American Sociology Review, Vol. 23, No. 5, pp.562-569
- Holman, T. B., Larson, J. H. And Harmer, S. L. 1994. *The develop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new premarital assessment instrument: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Vol. 43, 46-52.
- Noller, P. 2005.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Defining the love that supports marriage and family*. Personal Relationships, Vol.3 pp.97-115.
- McCubbin MA, McCubbin HI. 1991. *Family stress theory and assessment: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McCubbin HI, Thompson AI, eds.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Wi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p:3-32.
- Spanier, G. B. 1976. *Further evidence on methodological weaknesses in the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Scale and other measures of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403-414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pp.30-41



## A Study on the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Kim, Hyoun-Suk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hing about marital adjustment of marriage migration females. This research inspected relational and influential factors that has consequences for the marital adjustment. The subjects of research are 172 marriage migration females lived in Busan. Data were analyzed by MANOVA,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is study found that marriage migration female's marital satisfaction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pousal support, family stress, level of communication. And marriage migration female's divorce intention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hildren number, family stress. And marriage migration female's couple loving are influenced by length of marriage, spousal support, level of communication. Second, family stress is the most powerful factor to predict marital adjustment. Therefore the lower family stress is the better marital adjustment. And through this study I found that marital adjustment is more important family stress than acculturative stress.

Key words : marital adjustment,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divorce intention, couple loving, family stress

[논문 접수일: 09. 11. 27, 심사일: 09. 12. 08, 게재 확정일: 10. 01. 08]